



장수 번암면, 이웃사랑 기부 물결 이어져

장수군 번암면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내 단체와 개인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소순배)는 번암면사무소를 방문해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홍열 정은세)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소순배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작은 도움이 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번암면 생활개선회장과 악명의 기부자는 번암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50만원을 기탁했으며, 성암영농조합법인에서는 채지고기 1000kg을 각 마을회관에 기부하여 훈훈한 이웃 사랑에 동참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날 꾸러미 나눔 행사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소양)은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장애인 100명에게 설명절 선물꾸러미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쌀떡, 과당 등으로 준비된 설명절 선물꾸러미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가 후원한 사과 10박스와 염진미트(대표 전미경)에서 제공한 생활용품 30세트까지 더해져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됐다.

김세진 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리며 설 연휴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진미트 전미경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설 연휴 모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따뜻한 설 명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읍, 민원인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장수읍은 지난 4일, 민원인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요구 시 상황·유형별 응대 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전화민원 및 방문 민원의 응대요령, 올바른 언어 표현법 등이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부안 광수한우 정육식당, 마스크 1만장 기탁

광수한우 정육식당(대표 박선하)에서 지난 3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청을 방문해 마스크 1만장(300만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부안읍에서 한우 전문점 광수한우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하 대표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들의 방역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의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기탁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광수한우 정육식당은 지난 1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마스크 1만여장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도 부안군에 마스크 10,000장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 국민포장 수상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데 앞장선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지역혁신 유공으로 국민포장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 소장은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기독교립여성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전북지역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지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며 전북지역 위안부 할머니 9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 조성 및 여성단체 연대를 조직하는 노력으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여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지난 2014년부터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정비 활동을 하며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 소장은 이 기간 중 성착취공간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인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통해 선미촌 공간 7개소를 청년·여성·문화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거처로 탈바꿈시켜 선미촌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십대 성평



등 활동 지원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등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선희 소장은 “선미촌은 여성의 행복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미촌 변화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평등 전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금성교회 고영환 목사, 예수병원 벌전기금 1천만원 기탁

예수병원은 금성교회 고영환 담임목사가 지난달 28일 예수병원의 벌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영환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병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목사는 전북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종희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부터 (재) 예수병원 유지재단 총무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중한 벌전기금을 후원해 주신 금성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농협자산 전북지사, ‘농업인 희망동행’ 행사 실시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지사장 김성수)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증인 농업인에게 설 명절을 맞은 최근 ‘농업인 희망동행’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수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 이문구 농협고침군지부장, 김갑선 혜리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고창군 장씨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제도로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협동농협이 함께 응원과 격려로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젝트다.



김성수 지사장은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서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진안군, 산림분야 근로자 벌대색·안전교육 실시

진안군은 4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2년도 산림분야 근로자 벌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벌대식에는 공공사업기구 분야를 비롯해 14개 분야 근로자 81명이 참석했다.

이날 벌대식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산림보호의 근간이 되는 산림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며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입암기인후원원의 전문가로부터 산림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산림분야 무사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벌대식에 참석한 전준성 군수는 “이번 14개 분야 산림사업 추진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되며, 우리가 가꾸는 산림 및 녹지공간을 적극하게 정비하여 산림경관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진안군민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수칙 업수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즐거운 활동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교육청, 제2기 캠버리 JB 국가대표 수료식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활동해 온 제2기 캠버리 JB 국가대표 활동이 마무리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제2기 캠버리 JB 국가대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대원 94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2기 캠버리 JB 국가대표 활동 대원 경험 나눔, 제3기 캠버리 JB 국가대표 운동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2기 캠버리 JB 국가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흥보대사로서 스

카우트잼버리 국내외 국제 교류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스카우트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왔다.

또한 지역별 대원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감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다양한 문화 포용능력을 기르는 데 힘써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대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흥보대사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효자4동 주민자치위, 초등 새내기 책가방 지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형진)는 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생애 첫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10명에게 꿈 담은 책가방 세트(15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설 추석, 연말연시 등에 지역사회 봉사 및 이웃돕기성금 나눔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0명에게 책가방을 전달했다.

서형진 위원장은 “사랑의 책가방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집 밖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행복플러스 부모교육

사회복지법인 삶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기숙지원센터(센터장 정진원)에서는 7월부터 18일까지 초등·중등 예비 신입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행복플러스 부모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년 이중기로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대상기정으로 이용자 및 지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상기정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예비 초등생 학부모 12명, 예비 중학생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배부와 입학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작은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및 무주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준비된 교육자료는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에 대한 정보, 올바른 자녀지도 방법 및 부모역할, 자녀의 비른 습관 만들기, 책가방 및 소지품챙기기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 초등생 학부모를 위한 과정과 예비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유학기제 안내, 중학교 교육과정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부모로써의 자질향상, 더불어 가족 간 관계형상에 긍정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학령기·청소년기 입학 전 부모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기숙지원센터(063-322-1130/070-4230-7852)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